

**우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 6개월 저축 실적 10배, 최고 1백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3년이상 저축하시면 저축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 적립됩니다.  
 ● 문의: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9월 1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 이렇게 들었다

동북아 불교의 굵은 먹줄이 이르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불교지도자들이 서울에서 모여 세계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인적교류 등 상호우대를 선언했다. 지구촌의 불국토화를 위한 거룩한 내대담이다. 이제 국가와 민족의 벽을 뛰어 넘어 부처님 화상에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함께 일을 도모하겠다는 굳은 서원을 다졌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작은 일일지라도 공동체의식으로 행동을 같이 하도록 배워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백하게 된다. 이같은 이기적 가치관이 팽배한 현실에서 이번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서울 대회는 국경을 넘어선 동사상 정신의 실천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편집자주>

사법법(四法)은 사법사(四法事)라 하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중생의 마음을 인도하여 불도에 끌어들이는 네가지 방법이다. 사법법은 보시법(布施法) 애어설(愛語) 이행설(利行) 동사법(同體法)이다. <집이문시본>

### 4가지 비유

“수장자야, 너는 지금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있는데 어떤 법으로 이끌어 끌지는가?” “세존께서 말씀하신 네가지 일로 이끌어 끌입니다. 은혜로써 베푸는 것이요, 부끄러운 말로써 대하는 것이요, 상대방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요, 행동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착하다 장자야, 너는 법답게 대중을 이끌어 끌고, 문(門)답게 대중을 이끌어 끌고, 인연답게 대중을 이끌어 끌지는가?” <중아회경>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어진 반려가 될 친구를 만났거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마음을 놓고 기꺼이 함께 가라. <법구경>

모든 형제들을 내가 다 따 <관전기>

**금주 20면 발행**

조계사 도량회향불사 '순조' 15면  
 '자비 나누는 한가위' 11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 3국불교 “청정지구촌 만들자”

## 한중일불교교류회의 환경보호·난민구제등 '서울선언' 채택

3차대회 日교토서 내년 10월 개최  
 결과 보충연설을 통해 각국 대표들은 3국이 공동으로 전개할 평화운동 환경보존 문화교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서울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뒤 폐회했다.

### 관련기사 2·3면

환경보호와 난민구제 등 세계평화를 위한 한·중·일 3국 불자들의 역할을 제시하는 '서울선언'이 채택됐다. 한·중·일 3국의 불교지도자들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위례일호 호텔에서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를 개최하고 21세기에 있어서 3국 불교의 역할과 사명을 논의했다.

△문화·학술교류: '한중일불교문화재 전시회' '국제학술세미나' 등을 개최, 3국 불교도의 공동된 불교문화와 우수성을 확인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 △인력교류와 정보교환: '인력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3국이 공유하는 현장을 이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대장경의 연구, 정리, 전자화 작업을 공동 수행.

△상호간의 참관방문과 교류: 사찰방문단을 결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3국 불교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려 정보세계를 구현. △환경보존과 평화수호: 핵무기의 전면폐기와 '핵무기 실험금지조약'의 실현 등에 노력. △세계난민구제: 난민구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과 기구구성에 대해 연구.



“함께 갑시다” 3국 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는 21세기 불교역할과 사명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서울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왼쪽부터 중국 명양 스님, 필주스님, 일본 나가무라 고요스님. <사진=고영배 기자>

## 세계유산 '과학보존' 절실

문화재관리국 '유산지침' 해당 시·도에 전달  
 유네스코 한국위, 대법원에 골프장 반대 공문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10일 서울시와 경상남·북도 해인사 종묘사무소에 '세계문화유산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지침'을 보내고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재관리국은 이 지침에서

보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재관리국은 또 "관할 시·군 등 행정기관은 세계유산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개축 및 각종 환경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학술적·과학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침에서는 또 세계유산 관리주체를 문화재관리국과 해당 자치단체(경상남·북도 및 관할 시·군), 유산관리단체(해인사 불국사 종묘사무), 각 관

**컬러화보 신라왕자 김교각스님展 18·19면**

**김대통령 환영축전**  
 남미를 순방중인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10일 3국불교대회 개최식에 축전을 보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대통령은 3국의 우의를 바탕으로 21세기를 향한 불교의 사명을 모색하는 동시에 오늘의 불교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대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한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을 맞아 '가족과 함께 경주남산 순례'를 마련, 대구 부산지역의 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겨레의 땅 부처님의 땅'으로 불리는 경주남산은 40여 개의 계곡에 115곳의 절터, 87개의 석굴, 71기의 석탑이 있는, 산 전체가 곧 장엄한 법당입니다. 가족과 함께 선조들의 뛰어난 예술성과 지극한 신심의 향취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가족과 함께 '경주남산' 순례

- 부산·대구지역 불자 초대합니다**
- 일 시: 1996년 10월 3일(목) 오전10시~오후4시
  - 주 관: 현대불교 부산지사·대구지사
  - 인솔 현창강: 경주남산사람모임(김덕수·김구석씨)
  - 참가대상: 초·중·고교 학생과 부모, 대구·부산지역 각 100명 선착순
  - 출발 및 집결지: 부산·대구 한미공원 출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 집결(오전 10시)
  - 순례코스: ①코스: 상룡굴-마애유각굴-상사암-금오봉-용장사터-절골-용장굴  
 ②코스: 용장굴-절골-용장사터-금오봉-상사암-마애유각굴-상룡굴
  - 참가비: 1인 1만5천원 ○준비물: 도시락, 모자
  - 접수처: 부산지사(051)634-5114 대구지사(053)768-8008

## 경력·신입 사원모집

모집부서	종 시 요 건	인원
Computer Network	-Network Programming -TCP/IP/윈 Unix Socket Programming -Windows95 Network Programming -Network Administration 기능지 -Unix 7/2인 Network Administration -Novell network 7/2인 Network Administration -CGI, JAVA, Programming 기능지	09명
Computer Programming	-Windows 95 Programming 기능지 -C++ Programming 기능지 -API Programming 기능지	09명
Database Programming	-Oracle, Informix 등 RDBMS Management Programming 기능지 -Database Design 및 Information System Design 관련지	09명

● 전형방법/1차: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2차: 면접  
 ●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각 1부)  
 ● 접수기간/1996년 9월 25일(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  
 ● 접수·문의/(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기획관리부 (02)737-8881  
 ● 이력서 우측상단에 응시부서, 희망 연봉, 전공연학력 명기바람

**현대불교신문사**



# 最大の 민영제철소

한보의 신기술이 만든 민영 최대의 당진제철소! 21세기를 여는 '꿈의 제철소'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最大の 제철소** 단일 민영 제철소로는 최대인 110만평 규모의 당진제철소는 본격적인 철강의 서해안 시대를 연 차세대 제철소입니다.
- 最初の 수출** 국내 최초로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에 핫코일을 수출한 한보철강은 이미 동남아를 비롯, 이란 등 전세계로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最尖端 기술** 국내 최초로 최첨단 전기로 열연코일 생산에 이어 코레스공법으로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철강을 만듭니다.
- 最高の 환경** 집진시설과 녹지공간, 그리고 무공해 발전소 등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만들었기에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자랑스럽습니다.

**한보**

